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4. 여섯째 재앙

2014. 08. 1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넷째, 다섯째 재앙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여섯째 재앙을 이야기하던 중에 시간이 되어서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6:12~16]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 지난 시간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를 타나내는지 설명하려고 하다가 시간 때문에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답: 예, 지난 시간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할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표상적인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생각하니 또 다른 표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표상적 사건이 있는 셈입니다. 넷째 재앙이 태양이 뜨거워져서 태우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강물과 물 근원은 피가 된 곳이 있지요. 가뭄이 극심하지 않겠습니까. 피가 안 된 지역도 물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알만한데 엘리야 때의 가뭄입니다. 아합은 이 가뭄 때문에 물을 찾아 사방을 헤맸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왕상18:17)고 고함쳤지요. 결과로 갈멜산에 모여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백성들 앞에서 내기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처럼 세 짐승으로 표상된 연합세력이 망하는 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는데 이 왕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군천사들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개신교에서는 동방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든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온 왕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고레스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

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 오른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표현합니다.(말4:3) 해는 동쪽에서 돋습니다. 또 에스겔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오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겔10: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겔43:4,5]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5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을 역사적 그림자로 예언한 여섯째 재앙에 유브라데가 마르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 된다는 것은 사단의 연합세력이 패배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예증으로 예언한 것은 그 사건이 나타난 것을 해석의 모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할 차례입니다.

답: 성경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계16:13,14]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거짓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셋은 계13장에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 삼위일체라는 것을 1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 받으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14절에 이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모방합니다. 그것이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도 이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선지자가 성령을 모방하고 개구리 같은 세 영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합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모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연합시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3. 연합해서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성령의 늦은 비 역사로 엄청난 이적이 있었고 큰 능력으로 외쳤습니다. 삼위하나님을 모방한 이 가짜도 그런 능력을 행

하여 자신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나타났던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적을 행하거든요. 어떤 이적이겠습니까?(글쎄요?) 그것은 당장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이 어떤 형편입니까? 종기에,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고 해는 엄청 뜨겁고 어둠이 덮이고, 지금이야말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면 온 세상이 그들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며 그들 중심으로 연합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짐승이 연합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4. 아, 그런데 목사님,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시기라서 치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더러운 영들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도 없습니다. 구원의 회복을 위한 은혜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스스로 말씀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겨루려고 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재앙으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과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결속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임시적인 치료현상과 회복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은 다 그를 추종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이렇게 마음이 연합된 사람들은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입니다.

5. 아마겟돈,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세상 최후의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3차 대전이라는 말도하고 확실한 것이 없이 그냥 무서운 사건이라는 짐작들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적 해석을 올바르게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답: 목사님 말씀이 꼭 위협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도 정설이 없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정설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원칙으로 한 번 이야기해봅시다. 일곱 재앙의 역사적 표상 사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 중에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표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재앙도 출애굽 때 애굽에 있었던 재앙에서 세 가지 역사적 모형이 있었잖아요. 종기, 피가 되는 것, 흑암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함락과 관련하여 고레스가 행한 사건,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서 바벨론성을 함락시킨 사건이지요.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그가 동방에서 왔습니다. 것처럼 이 재앙에 대한 표상이 엘리야 때의 가뭄과 그 결과로 바알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두고 대결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건의 진행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과 백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을 헤맸습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왕을 만납니다. 그때 왕은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판가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산에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모은 것은 왕의 지시였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제안했지요.

6. 여섯째 재앙이 그와 같은 진행과 동일합니까?

답: 글썄요?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흡사한 진행입니다. 이미 말했는데요, 앞에 세상을 괴롭히는 재앙들이 내립니다. 국지적으로 내립니다. 넷째는 태양의 열기로 모든 것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가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재앙 때에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에 어둠이 덮입니다. 그 어둠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때까지 종기도 아픕니다. 낮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 기록 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로는 마지막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영이 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건 순서로는 먼저입니다. 엘리야 때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가뭄이 계속되니까 바알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국민들을 다독거리며 번개와 비의 신인 바알이 곧 비를 내릴 것이라고 설득하면 전국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당연히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엄청 당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적을 베풀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단이 이적을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의 제재 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불을 내리는 사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계16:15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계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절에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기 전에 15절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때이기 때문에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결하기 위하여 세 더러운 영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14절은 모으는 사실을 말하고 16절은 모이는 장소를 가르쳐줍니다. 그곳이 아마겟돈입니다.

이 진행 순서가 흡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 설명하시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어디인지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답: 엘리야 때의 갈멜산 사건이 여섯째 재앙의 모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음을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요, 아마겟돈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다.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마겟돈의 보다 정확한 음역은 “하르 므깃도”인데 “하르”는 “작은 산”을 의미하며 “하르므깃도”는 “므깃도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므깃도 산”에 대한 견해는 여섯 가지정도가 있

습니다. (1) 갈릴리의 고대 도시 므깃도를 가리킨다. (2) 갈멜 산을 가리킨다. (3) “집회의 산”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14:12-15의 기록에서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북극 집회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여기 “아마겟돈”이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사본의 증거가 부족하며 전후 문맥과 서로 모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4)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약탈의 산”이나 “멸망의 산”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6)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는 “므깃도”는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다드”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를 명사형으로 고치면 접두어 “마”가 붙어 “마게드”가 되는데 이는 “군대를 소집하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접미어 “오”가 붙어 “마게돈”이 되며 “군대를 소집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14절)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위하여 열방을 한 곳에 모으는 예언적인 성취를 암시한다는 해석입니다.(골3:12) 이 여섯 가지 설명 중에 마지막 설명이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저는 엘리야 때 사건을 배경으로 볼 때, 둘째 견해가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 산이 아니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둘째 견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므깃도는 에스드렐론 평야 지역입니다. 므깃도 자체에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므깃도의 산이라고 하면 에스드렐론 평야 서쪽 지중해에 연하여 있는 갈멜산 뿐입니다. 이 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용, 짐승, 거짓선지자가 거짓 삼위일체를 이루고 그것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여 경배를 받으려고 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내립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이 재앙을 해결하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엘리야 같은 존재가 눈에 뜨입니다. 그들 때문에 생긴 재앙이라고 더러운 세 거짓 영이 이적을 행하여 뒤집어씌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옷을 단정히 입은 성도들을 박멸하여 이 재앙을 면하자고 합니다. 결국 옷을 단정히 입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적을 행하는 더러운 영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내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치르게 되는 전쟁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부딪힐 것입니다. 이 전쟁의 상태를 19장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엄청난 천연계의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일곱째 재앙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한 대로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즉 악인들이 다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곧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천군천사들과 삼위하나님께서 함께 이 지구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8. 이 재앙의 때에 옷을 지킨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답: 제가 지난 시간인지 증보에 대하여 말씀드렸지요. 예수께서 하늘성소의 모든 봉사를 마쳤기 때문에 속죄의 증보자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예수 옷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롬13:11~14]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나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계16:15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재앙의 때, 곧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께서 하늘성전에서 하는 중보가 끝났음에도 성도들은 예수를 옷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영들의 활동에서 눈에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아마겟돈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도 야곱의 환난, 곧 악한 세상에 재앙이 내리는 때에도 예수를 옷 입고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을 나타내고, 벗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오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고후5:3,4에 설명이 있지요.

[고후5:3,4]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이나,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나 야곱의 환난 때나, 일곱 재앙 때에나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에 이 세상에 숨 쉬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선언은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9. 예, 목사님, 중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보라고 하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 예수님은 성소에서 봉사하시거나 아니하시거나 언제든지 중보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태초에 아담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2:25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벗을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3:6,7을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야 몸이 벗을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에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말은 벗은 줄 몰랐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지요. 사람들이 현재 입는 그런 종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빛을 옷으로 입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8: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말씀은 영광과 존귀를 옷으로 입혔다는 말입니다. 관 씌웠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타르인데요, 둘러쌌다는 뜻입니다. 영광으로 옷을 입힌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광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빛을 입혔다는 뜻이 됩니다. 시편 104:2에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빛을 옷으로 입히신 것이지요. 이 사실은 우리가 금빛 새벽 성경강론을 하면서 몇 번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1:4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옷 입었다는 말은 생명이 넘치도록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별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생명이 떠나버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잘 지키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옷을 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그것은 예수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중보를 끝내신 때에라도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어서 옷을 지켜야 합니다. 별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6절에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과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다 갖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일곱째 재앙과 19장에 묘사된 사건으로 더 자세히 묘사됩니다. 결국 아마겟돈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꺾멸하게 됩니다.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드러내게 되고 둘째 부활 후에 패배한 악의 세력은 그 존재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여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옷을 지킨 자들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 대하여 19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10. 감사합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애청자들이 다 이 흰옷 곧 생명의 빛의 옷을 입고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 오시는 날 생명의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 중에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마칠 시간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마겟돈 전쟁의 상태의 실상을 잘 알도록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옷을 지켜 별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중에 꼭 맞이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